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A Studies on Crime Fear of Married Immigrated Women in Korea

Sang Hyun Cho**, Yook Sang Jung***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Korea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Korea

Abstract

The foreign such as foreign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become numerous in Korea become part of development across the Korean society and play their given role. People including scholars need to know their difficulties such as crime victimization and find the solutions because foreign are part of our culture and history and partner who lead our national prospe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fear of crime for foreign marriage immigrant woman through empirical research method based on prior studies. This study uses the research model that use victimization experience, interpersonal trust, community adaptation, community policing as independent variable and fear of crime as dependent variable referring prior studies. The result indicates that culture conflict, direct victimization, in-direct victimization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fear of crime. Community policing, interpersonal trust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fear. In short, when the woman have serious culture conflict, direct victimization and in-direct victimization, the woman's fear of crime becomes high. Also, when trust about the police and people is low, the woman have high fear of crime. These findings implies the need to promote the social integr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foreign marriage immigrant woman.

Key words: victimization experience, interpersonal experience, community adaptation, community policing, fear of crime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e 1st author. Tel. +82-70-7567-3185, E-mail. whtkdgs37@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3-580-5999. E-mail. imjys2711@km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e. 2, 2015 / Revised: June. 5, 2015 / Accepted: June. 12, 2015

국문초록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정치, 사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주어진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의 한 부분이자 국가번영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이기에 이들이 겪어야 하는 범죄피해 등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자들을 포함한 우리사회가 찾아야 할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범죄피해경험, 대인신뢰,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는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화적갈등, 직접적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 대인신뢰 순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갈등이 높을수록, 직접적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간접적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범죄피해경험, 대인신뢰,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두려움

1. 서론

21세기 지구촌 사회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만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의 입국이 급증하여 2030년까지 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이주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의 체류가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 출신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양순미, 2006).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결혼한 농·어촌 남성 가운데 36%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의 외국 출신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국제결혼이 1만 건 수준으로 전체 결혼의 1~3%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6만여 건으로 전체 결혼의 15%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보면 다문화국가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으나(김은미 외, 2009: 18), 외국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보아 이에 대비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이제는 새롭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인 간의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 대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은 다른 국적과 인종, 지역을 초월하여 사랑을 하고 가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외

국민 기피증을 고쳐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단일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정순, 2012).

국제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이웃주민들간 이해 및 갈등의 문제, 특정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범죄문제,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착오의 문제, 가정 내 폭력문제, 일상생활 내에서의 범죄피해경험, 외국인이라는 특징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윤경희, 201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응, 생활안정, 취업·창업 등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복지적 측면에만 그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왔으며, 결혼이주성과 같은 신분상의 특수성과 사회적 약자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죄두려움 문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윤경희·박상주,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로 개발도상국가 출신들이고 대다수가 주로 농·어촌의 노총각들과 결혼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더욱더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그러한 치안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설명한 범죄피해경험, 대인신뢰, 지역사회적응 및 지역사회경찰활동 중 어떤 모형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범죄두려움의 접근방법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자기보고식 조사를 하면서 부차적으로 새롭게 관심이 증폭된 분야이다. 그 당시 미국 연방 정부의 범죄백서(Uniform Crime Report)가 실제 발생한 범죄율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존슨(Johnson) 대통령이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를 설립하였다(Ditton & Farrall, 2000: xv). 이 위원회는 범죄두려움이 미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한다는 인식이 만연함으로써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범죄두려움은 범죄발생과는 독립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별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범죄두려움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사 이후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범죄두려움의 개념은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범죄두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장되고 격렬해졌다.

범죄두려움의 개념화는 지난 20여 년 간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Farrall, *et. al.*, 1997; Ferraro & LaGrange, 1987; Rountree & Land, 1996a; 1996b). 최초로 범죄두려움(fear of crime)과 범죄에 대한 염려(concern with crime)의 개념을 구분한 Furstenburg(1971)은 ‘범죄두려움’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정서적 상태(affective state)로 정의하였고, ‘범죄에 대한 염려’는 범죄에 대한 일반적 걱정과 관련된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로 정의하였다(Furstenburg, 1971). LaGrange & Ferraro(1989), LaGrange, Ferraro, & Supanic(1992), 그리고 Rountree & Land(1996b)의 연구는 두려움의 형태에 있어서 감정적 반응과 위협의 인지적 평가 사이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Sacco(2005)는 연구자들이 범죄두려움의 세 가지 측면, 즉 인지적·감정적·행동적 측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인지적 측면은 개인 스스로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즉,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Ferraro의 ‘범죄의 위험(risk of crime)’ 개념과 비슷하다.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공식적 범죄율과 같은 객관적 위험의 측정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옳은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 알 수 있다(Sacco, 2005: 125). 다음 감정적 측면은 개인이 범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은 두려움의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감정적 반응으로서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위험인지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다(Ferguson & Midel, 2007). 즉, 범죄두려움이란 일종의 감정적 반응이라면, 범죄피해 위험인식은 범죄의 피해위험을 둘러싼 인지적 평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두려움의 행동적 측면은 개인이 실제로 범죄에 대한 반응 또는 그들의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어적 수단을 취할 수도 있고,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예방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김연수, 2010).

2.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의 경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는 추정된 범죄의 발생 가능성과 실제 범죄피해의 경험에 기초를 두어 설명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범죄피해에 불안해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은 그들이 겪은 실제 범죄피해경험과 그에 따른 높은 위험인지라는 것을 가정하였다(Lewis & Salem, 1981). 즉, 실제 범죄피해를 겪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다(Balkin, 1979; Liska, *et. al.*, 1988;

Skogan, 1986). 하지만 범죄두려움에 대한 범죄피해경험의 영향력을 실험한 연구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더욱 두려워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일부는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범죄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한다(Wilcox, *et. al.*, 2006; Schafer, *et. al.*, 2006). 또 다른 연구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범죄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주장한다(Mesch, 2000; Warr & Ellison, 2000).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두려움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연구들은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Reiss, 1967; Block & Long, 1973), 다른 연구들은 범죄두려움과 이전의 범죄피해경험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eyerherm & Hindelang, 1974; Kleinman & David, 1973). 박철현(2005)은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인해 범죄 자체나 특정장소, 지역 등에 관한 위험도 등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특정상황이 발생하거나 범죄를 당하지 않는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며 피해경험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역시 범죄두려움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자신의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이외에도 범죄피해나 범죄문제를 겪은 이웃이나 친구 등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매스미디어 통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역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ogan(1977)은 가족 및 친지들의 범죄 피해경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두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범죄 피해자는 그들의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을 가족 및 친지, 이웃 그리고 친구 등에게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이웃, 친구 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과급효과(riffle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Covington & Taylor, 1991). 노성호·김지선(1998)는 범죄두려움을 본인의 직접적 범죄피해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범죄피해경험을 통한 대리경험이나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간의 의사소통, 매스미디어의 범죄보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2) 대인신뢰와 범죄두려움

이웃통합모델(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은 이웃과 잘 모르고 지내며, 오래 살지 않아서 지역사회의 일에 관여하는 일이 별로 없는 상태가 범죄두려움을 낳는다고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신고해 주거나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과 지역사회에 대한 친숙함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웃통합모델의 경우 피해경험모델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논리상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 수준에서 강한 사회적 연대를 나타내는 지역사회일수록 낮은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도 있지만(Taylor, *et. al.*, 1985), 개인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결속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함을 보고하기도 한다(Bursik & Grasmick, 1993: 184). 즉, 지역사회와 강한 유

대력을 발휘하는 경우 범죄나 무질서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이 감소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정보 공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오히려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한다는 것이다(이윤희, 2007: 186; 노성호 외, 2012: 203).

대인신뢰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Ross & Jang (2000)은 지역사회 내의 비공식적 유대들이 범죄두려움과 불신에 영향을 주는 무질서 효과를 완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효율성이 높으면 범죄두려움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Covington & Taylor(1991)는 사회유대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발견하였고, Villarreal & Silva(2006)는 높은 사회적 결집과 유대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서로 잦은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을 더 자주 접하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장안식, 2011). 강석진·이경훈(2007)의 연구에서는 이웃간의 관계와 유대를 요인으로 한 근린관계 활성화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간 교류촉진이나 근린애착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물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ogan & Maxfield(198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와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에 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unter & Baumer(1982)는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 구성원과 낯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고, 스스로를 지역의 일부분이라고 느끼는 지역사회 구성원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Covington & Taylor(1991)는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웃주민들이 경찰을 불러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최인섭·김지선, 1997: 50).

3)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기존의 사회통제모델에서는 지역의 비공식적 유대 등의 특성에 주로 주목했지만 공식적 사회통제인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지역사회 내에서 순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며, 문제를 확인 및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인체포, 범죄예방, 문제 확인 및 해결,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협력하는 것을 일컫는다(Frazier, 2000: 1).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문제 및 해결과정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 경찰의 역량과 동기 변화를 포함한 경찰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Wilkinson & Rosenbaum, 1994: 110).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두려움, 지역사회 무질서 등의 문제를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주목한다. 범죄두려움의 문제도 지역사회 내에 경찰이 위치하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경찰의 잦은 접촉,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관계에 개입,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등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두터울수록 그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죄두려움은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Hering & Maxfield(1978)은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의 순찰활동을 자주 목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크게 느낀다고 하였으며, Baker, et. al.(1983)는 지역사회내에서의 경찰활동이 범죄통제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수록, 비효율적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할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범죄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정승민(2007)은 경찰의 순찰활동, 범죄예방활동, 서비스활동 등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임준태(2003)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범죄예방활동으로서 도보순찰이 자동차순찰에 비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문제 해결, 범죄예방 그리고 민경친선(民警親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이주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경제적 기대의 상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인종의 편견과 차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최운선, 2007).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때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회문화적·심리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은 타문화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Searle & Ward, 1990; Ward, et. al., 2001; Ward & Kennedy, 1992). 사회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화학습의 행동적, 인지적 요소들로 구성되며, 심리적 적응은 주로 심리적 안녕, 정신적 건강과 연관되는 것이다(Ward, et. al., 2001).

Berry(1997)는 이민자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접촉, 지지, 사회적 태도 등 사회적 관계의 제반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 건강, 언어, 문화적 거리, 사회적 지위, 이민의 주요 동기 등은 이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요인이지만,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적응 과정 중에 발달되는 동시에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수성이 있다(민무숙 외, 2013).

거주지역에 이웃과 인종이 다양할수록 범죄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Covington & Taylor, 1991; Taylor, et. al., 1984), 문화 및 인종의 다양성을 많이 겪을수록 범죄 두려움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ennett & Flavin, 1994).

Lee & Ulmer(2000)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주민의 범죄에 대한 위협 의식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보다 범죄두려움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오래 거주한 한국인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 전통문화를 더 자주 접하는 한국인일수록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문화적 유대는 강하지만 범죄두려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종적 편견과 흑인을 경멸하는 편견을 가진 한국인일수록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Alvi, et. al.(2001)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인적 안전감에 대한 지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무질서와 지역사회 만족도가 안전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범죄피해경험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Merry(1981)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같은 중국인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 중국인은 시끄럽고 난폭한 흑인을 위협한 존재로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두려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Taylor, et. al.(1984)은 주거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범죄두려움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Covington & Taylor(1991)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주민과 인종이 다를수록 범죄두려움이 높다고 발견했다(윤수경, 2012).

III. 연구의 방법

1.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이전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결혼이주여성에게 맞게끔 재구성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전국 각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구하여 지방경찰청이 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 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용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수행되었으며,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도, 제주도 각 지방경찰청의 담당자로부터 총 1,326부의 설문지를 인수받았으며,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한 번호로 표기한 경우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 1,27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여 이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증조사를 통해 회수된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둘째, 각 변인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범죄피해경험, 대인신뢰,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 대인신뢰,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범죄두려움이란 특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이 그것이다(이윤호, 1993). 여기서 일반적 범죄두려움이란 일반적으로 범죄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범죄로부터 느끼는 취약성의 일반화된 느낌 또는 안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무형의 두려움(*general formless fear*)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나 확률에 대하여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특정한 구체적 두려움(*specific concrete fear*)이라고 볼 수 있다(김연수, 2010: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한 문항을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 범죄를 제시해주는 형태와 일반적 상황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범죄두려움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대상이 되는 범죄두려움을 지역무질서 두려움과 절도·강도·소매치기·폭행·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누었으며, 강도와 소매치기의 경우 장소를 집 안과 집 밖으로 구분하여 따로 측정했고, 폭행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면식이 있는 사람인지 면식이 없는 사람인지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신뢰도 값은(Cronbach alpha) 0.952이다.

2) 독립변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범죄피해경험은 피해경험모델(*victimization model*)에서 제시한 것으로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자신이 직접 당한 범죄피해가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죄피해 소식 등을 접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관련 요인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즉, 친구, 친척, 가까운 이웃의 범죄피해경험을 물었고, 측정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절도·강도·소매치기·폭행·성폭행으로 나누었다. 강도와 소매치기의 경우 장소를 집 안과 집 밖으로 구분하여 따로 측정했고, 폭행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

가 면식이 있는 사람인지 면식이 없는 사람인지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신뢰도 값은(Cronbach alpha) 0.742,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신뢰도 값은(Cronbach alpha) 0.661이다

대인신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Wurff, *et. al.*(1989)의 연구로 대표될 수 있는 범죄두려움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모형에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흔히 타인에 대한 의심(evil intent)이나 경계심 등으로 풀이된다(성욱제, 2012). 이 연구에서는 대인신뢰 즉,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관련해서 ‘진실한 친구는 어디서나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우호적이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친절하고 협조적이다’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신뢰도 값(Cronbach alpha)은 0.731이다.

지역사회적응은 구자숙 외(2003), 윤경희(2010)의 연구에서 채택한 사회적 요인들 중 개인의 지역사회와의 친밀도 등을 묻는 사회적 지지와 Ackah(2000)가 이주민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했던 이주사회에 대한 심리적 적응도가 합산된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으로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개념이다(성욱제, 2012). 사회적 지지망은 ‘이웃주민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나는 도와줄 상담기관이나 사회기관에 자주 참여한다’ 등 이웃주민들과의 관계, 지역이나 사회기관의 참여 등을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적 갈등은 ‘나는 한국의 문화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과 자주 충돌한다’,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나와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나를 자주 무시한다’ 등 문화 충돌, 편견, 차별, 무시 등 7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값은(Cronbach alpha) 0.861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공식적 사회통제인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형태의 개념이다.

지역사회경찰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Hennig & Maxfield(1978)는 지역사회내에서 경찰의 순찰활동을 자주 목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일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크게 느낀다고 하였으며, Baker, *et. al.*(1983)는 지역사회내에서의 경찰활동이 범죄통제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수록, 비효율적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할수록 지역주민들은 범죄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우리 지역경찰은 범죄발생시 신속히 출동한다’, ‘우리 지역경찰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 지역경찰은 외국인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등 7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신뢰도 값(Cronbach alpha)은 0.928이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 통계결과

<표 1>은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이다. 조사자의 연령은 3.76(Std.D = 1.46)로 26세 이상 30

세이하 또는 31세 이하 35세 이하가 평균적인 연령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68%로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회하는 수가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국적취득은 평균 .42(Std.D = .49)로 국적 취득보다는 취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가정의 한 달 수입은 평균 3.34(Std.D = 1.59)로서 월평균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평균적인 소득임을 알 수 있었다.

범죄피해경험을 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전체의 10%이며, 직접적으로 범죄피해경험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전체의 4%로, 가까운 주변 사람,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죄피해 소식 등을 접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지지 3.20(Std.D = .68), 문화적갈등 2.73(Std.D = .69), 대인신뢰 3.10(Std.D = .66), 지역사회경찰활동 3.85(Std.D = .63)로 중간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범죄두려움은 평균 2.60(Std.D = .77)로 중간값 이상의 값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량

	Mean	Std.D	Min	Max
연령	3.76	1.46	1	9
거주지	68%	.46	0	1
국적취득	.42	.49	0	1
한 달 수입	3.34	1.59	1	7
간접적 범죄피해	10%	.17	0	1
직접적 범죄피해	4%	.12	0	1
사회적지지	3.20	.68	1	5
문화적갈등	2.73	.69	1	5
대인신뢰	3.10	.66	1	5
지역사회경찰활동	3.85	.63	1	5
범죄두려움	2.60	.77	1	5

2. 변수간의 상관관계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인과관계의 분석 전에 변수들간의 관련성 정도를 방향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다는 이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구성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범죄피해경험(간접적 범죄피해, 직접적 범죄피해), 지역사회적응(사회적지지, 문화적갈등), 대인신뢰,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적갈등($r=.327, p<.01$), 직접적 범죄피해($r=.258, p<.01$), 간접적 범죄피해($r=.223, p<.01$)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r=-.142, p<.01$), 대인신뢰($r=-.066, p<.005$) 순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갈등이 높을수록, 직접적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간접적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1										
2. 거주지	.073**	1									
3. 국적취득	.169**	.037	1								
4. 한 달 수입	.152**	.115**	.056*	1							
5. 간접적 피해	.099**	.091**	-.002	.038	1						
6. 직접적 피해	-.001	.030	-.052	.015	.521**	1					
7. 사회적지지	.106**	-.098**	.177**	.036	-.084**	-.003	1				
8. 문화적갈등	-.107**	.064*	-.048	-.091**	.143**	.169**	-.178**	1			
9. 대인신뢰	.066*	.013	.066*	.068*	-.074**	-.038	.336**	-.121**	1		
10. 지역사회경찰활동	.044	-.081**	.103**	.000	-.065*	-.042	.258**	-.036	.265**	1	
11. 범죄두려움	-.023	.148**	-.047	-.034	.223**	.258**	-.037	.327**	-.066*	-.142**	1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체류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음의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델 1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F값은 8.925, p=.000에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027로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연령, 거주지, 국적취득, 한 달 수입이다. 베타값을 통해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주지(β=.15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범죄피해경험, 지역사회적응, 대인신뢰,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값은 29.298, p=.000에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²=.188으로 18.8%의 설명력을 나타내 모델 1의 설명력보다 약 16%정도 높게 나타났다.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요인들은 거주지, 범죄피해경험(간접적 범죄피해, 직접적 범죄피해), 지역사회적응(사회적지지, 문화적갈등),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나타났다. 베타값을 통해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접적 범죄피해(β=.152, p<.001), 간접적 범죄피해(β=.091, p<.001), 문화적갈등(β=.320, p<.001), 지역사회경찰활동(β=-.152, p<.001), 사회적지지(β=.085, p<.01)로 범죄두려움에 영향력을 나

타났다. 즉, 범죄피해의 경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Mesch, 2000; Warr & Ellison, 2000; Balkin, 1979; Liska, Sanchirico & Reed, 1988; Skogan, 1986)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역사회적응은 사회적지지와 문화적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지지 즉, 지역사회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Covington & Taylor, 1991)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화갈등이 높아질수록 범죄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Merry, 1981; Covington & Taylor, 1991)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Henig & Maxfield, 1978; Baker, *et. al.*, 1983; 이성식, 2000; 임준태, 2003)과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3>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B	β	B	β
(상수)	2.576	-	1.931	-
연령	-.010	-.019	-.001	-.003
거주지	.260***	.156	.198***	.119
국적취득	-.074	-.047	-.043	-.028
한 달 수입	-.023	-.047	-.014	-.028
간접적 피해			.423**	.091
직접적 피해			.951***	.152
사회적지지			.085**	.075
문화적갈등			.320***	.284
대인신뢰			-.011	-.009
지역사회경찰활동			-.152***	-.124
N	1,272			
R ² (adj.R ²)	.027(.024)		.188(.182)	
F값	8.925***		29.198***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이들을 위한 치안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문화적갈등, 직접적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 대인신뢰 순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갈등이 높을수록, 직접적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간접적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범죄

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대인신뢰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외국인 기피증, 폐쇄적인 단일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여 우리와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우리 사회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하여 정부 및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축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제공되는 수 많은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 생활에 적응치 못한 이들에게는 도움보다 혼돈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피해야 한다. 즉,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 거리,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다면 범죄두려움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보다 효과적인 대책방안이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가족 및 지인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결혼이주여성은 이런 지원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범죄피해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들이 보다 쉽고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위압적이고 군림하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경찰이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가 결혼이주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적응하면서 겪는 문제점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면 이 연구의 목적인 범죄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면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요인을 더욱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며 결혼이

주여성과의 면접 등의 질적 방법론을 통하여 양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추며,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석진, 이경훈. 2007. 도시주거지역에서의 근린관계 활성화를 통한 범죄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7): 97-106.
- 구자숙, 이현희, 원영희, 전영실. 200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4(3): 141-166.
- 김연수. 201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2009. 다문화사회, 한국. 서울: 나남.
- 김정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성호, 권창국, 김연수. 2012. 피해자학. 서울: 그린.
- 노성호, 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2): 169-201.
- 민무숙, 김이선, 주유선, 이정연.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84: 5-43.
- 성옥제.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4.
- 윤경희. 2010.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희, 박상주.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2): 197-215.
- 이민식. 2000. 범죄에 대한 반응: 일반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44(1): 156-187.
- 이성식. 2000.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 133-152.
- 이윤호. 1993. 범죄에 대한 공포: 그 원인과 반응. 형사정책연구. 4(1): 27-44.
- 이윤호. 2007.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 임준태. 2003.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억제적 효과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1): 161-190.
- 장안식. 2011.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맥락적효과와 조절효과를

-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민. 2007. 범죄두려움에서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4(1): 43-73.
- 최인섭, 김지선. 199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Ackah, Y. 2000. Fear of Crime among Immigrant Population in the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Black Studies*. 30(4): 553-573.
- Balkin, S. 1979. Victimization Rates, Safety and Fear of Crime in a Local Context. *Crime, Media, Culture*. 1(2): 169-187.
- Barker, M. H., B. C. Nienstedt, R. S. Everett, and R. McCleary. 1983. The Impact of a Crime Wave: Perceptions, Fear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Law and Society Review*. 17(2): 319-335.
- Bennett, R. R. and J. M. Flavin. 1994. Determinants of Fear of Crime: The Effect of Cultural Setting. *Justice Quarterly*. 11(3): 357-381.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lock, M. K. and G. J. Long. 1973. Subjectiv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and Crime Levels : An Economic Approach. *Criminology*. 11(1): 87-94.
- Bursik, R. J. and H.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ovington, J. and R. B. Taylor.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 Implication of Between and Within 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 Ditton, J. and S. Farrall. 2000. *The Fear Of Crime*. Burlington, Vermont: Ashgate Publishing Company.
- Farrall, S., J. Bannister, J. Ditton, and E. Gilchrist. 1997. Questioning the Measurement of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4): 659-679.
- Ferguson, K. M. and C. H. Mindel.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53(2): 322-349.
- Ferraro, K. F. and R. L. LaGrange.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70-97.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UNY Press.
- Feyerherm, W. H. and M. J. Hindelang. 1974. On the Victimization of Juveniles: Some Preliminary

- Resul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1(1): 40-50.
- Frazier, T. C. 2000. *Director's Notes: A Definition of Community Policing*.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 Furstenberg F. F. 1971. Public Reactions to Crime in the Streets. *The American Scholar*. 40(4): 601-610.
- Hening, J. and M. G. Maxfield. 1978.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Intervention.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3(3): 297-313.
- Kleinman, P. H. & D. S. David. 1973. Victimization and Perception of Crime in a Ghetto Community. *Criminology*. 11(3): 307-344.
- LaGrange, R. L. and K. F. Ferraro.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4): 697-719.
- LaGrange, R. L., K. F. Ferraro, and M. Supancic.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3): 311-334.
- Lee, M. S. and J. T. Ulmer. 2000. Fear of Crime among Korean Americans in Chicago Communities. *Criminology*. 38(4): 1173-1206.
- Lee, Min-sik 1998. Fear of Crime among Korean American in the Chicago Area: A Multilevel Analysis. Purdue University Dep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Ph. D. Dissertation.
- Lewis, D. A. and G. Salem. 1981. Community Crime Prevention: An Analysis of a Developing Strategy. *Crime and Delinquency*. 27(3): 405-421.
- Liska, A. E., A. Sanchirico, and M. D. Reed.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Social Forces*. 66(3): 827-837.
- Mesch, G. S. 2000. Perceptions of Risk, Lifestyle Activities, and Fear of Crime. *Deviant Behavior*. 21(1): 47-62.
- Reiss, A. J. 1967. Studies in Crime and Law Enforcement in Major Metropolitan Areas.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 United States of America*. 1(1): 1-300.
- Ross, C. E. and S. J. Jang. 2000. 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01-420.
- Rountree, P. W. and K. C. Land. 1996a.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2): 147-180.
- Rountree, P. W. and K. C. Land. 1996b. Perceived Risk versus Fear of Crime: Empirical Evidence

- of Conceptually Distinct Reactions in Survey Data. *Social Forces*. 74(4): 1353-1376.
- Sacco, V. 2005. *When Crime Waves*. Thousand Oaks, CA: Sage.
- Schafer, J. A., B. M. Huebner, T. S. Bynum. 2006.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Gender-based Contra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3): 285-301.
- Searle, W. and C. Ward.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 Skogan, W. G. 1977. Dimensions of the Dark Figure of Unreported Crime. *Crime and Delinquency*. 23(1): 41-50.
- Taylor, R. B., S. D. Gottfredson, and S. Brower. 1984. Block Crime and Fear: Defensible Space, Local Social Ties, and Territori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4): 303-331.
- Taylor, R. B., S. A. Shumaker, and S. D. Gottfredson. 1985. Neighborhood-level Links between Physical Features Add Local Sentiments: Deterioration, Fear of Crime, and Confidenc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2(4): 261-275.
- Villareal, A. and B. F. A. Silv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 Ward, C. and A. Kennedy. 1992. Locus of Control, Mood Disturbance, and Social Difficulty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2): 175-194.
- Ward, C. A., S. Bochner, and A. Furnham.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Psychology Press.
- Warr, M. and C. G. Ellison. 2000. Rethinking Social Reactions to Crime: Personal and Altruistic Fear in Family Househol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3): 551-578.
- Wilkinson, D. L. and J. P. Rosenbaum. 1994.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on Community Policing: A Comparison of Two City*, in Rosenbaum(ed.), D. P. *The Challenge of Community Policing: Testing the Promises*. Thousand Oaks, CA: Sage.

조상현: 동국대학교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결혼이주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3), 현재 동대학원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사)목척사회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학, 범죄학, 범죄예방, 민간경비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경찰의 4대 사회약 근절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민의 인식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whtkdus37@hanmail.net).

정육상: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91)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정치학과, 연구위원) 및 위치타 주립대학(형사행정학과, 조교수)에 근무한데 이어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테러, 국제범죄, 국가정보, 위

기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Revamping the Korean Intelligence Service: A View Point of National Security(1994)”, “우리나라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2010)”,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경험을 중심으로(2009), 국제범죄의 최근동향과 그 대응방안(2011)”, “외로운 늑대테러의 발생가능성과 경찰의 대응방안(2013)”, “텔파이 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2013)”,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양 기관의 유사업무 조정을 중심으로(2013)”, “이집트 한국인 테러 사건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014)”, “국제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수사기관의 대응능력 제고방안(2014)” 등이 있다(E-mail: imjys2711@kmu.ac.kr).